

프로야구 마지막 일주일



순위 싸움 멈췄어도 기록 싸움 계속된다



이번주 144경기 대장정 마무리...막판 개인 기록 경쟁 치열
최형우, 112타점·타율 0.352...타격왕 슝막히는 1리 싸움
나지완, 100타점·임기영, 31일 NC와 최종전서 10승 도전

야구팬들에게 가장 슬픈 날이 찾아온다. 코로나19로 도전의 시대를 보냈던 KBO리그가 이번 주를 끝으로 2020시즌 정규리그 일정을 마감하게 된다. KIA는 지난 21일 NC와의 경기가 비로 취소되면서 오는 31일 시즌 최종전을 치르게 됐다. 지난 23일 LG전 4-8 역전패로 KIA의 5강 도전은 끝이 났다. 5강 경쟁은 종료됐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과 도전이 KIA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최형우, 나지완 그리고 임기영의 움직임이 관전 포인트다. '꾸준함'의 상징 최형우가 올 시즌에는 강렬함까지 더해 막판 타격왕 싸움에 뛰어들었다. 최형우(0.3516)는 KT 로하스(0.3527), 롯데 손아섭(0.3518)이라는 KBO리그를 대표하는 타자들과 개인 성적은 물론 팀 승리를 위해 싸우게 된다. '가을잔치'를 벌이는 5개 팀이 모두 확정됐지만, 아직 순위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창단 첫 포스트 진출 꿈을 이룬 KT는 반 경기 차 LG를 상대로 2위 자리를 노리고 있다. KIA와 롯데는 6위를 놓고 마지막 자존심 싸움을 벌이고 있다. 마침 '타격왕' 후보들이 마지막 한주 맞대결을 벌이게 된다. KIA는 27·28일 KT와 안방에서 2연전을 치른다. 29일에는 시즌 마지막 원정 경기가 사직에서 열린다. 최형우는 최근 10경기에서 0.417의 타율을 기록하며 고공행진 중이다. 개인적으로는 '30홈런-100타점'에도 욕심내볼 수 있다. 최형우는 격일제로 홈런을 생산하면서 최근 10경기에서 5홈런을 만들어냈다. 112타점으로 이미 100타점은 넘어섰고, 30홈런에 3개 남겨두고 있다.

나지완은 100타점에 도전한다. 2008년 KIA 유니폼을 입고 프로에 뛰어든 나지완도 꾸준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올 시즌 타이거즈 프랜차이즈 최다 홈런 타이틀을 차지했다. 나지완의 홈런이 나올 때마다 타이거즈 홈런 기록도 새로 작성된다. 타이거즈 계보를 잇는 거포로 활약했지만, 아직 100타점 고지를 넘어본 적이 없다. 2013년 96타점이 나지완의 최다타점 기록. 나지완은 24일 삼성전에서 투런포를 날리며 91타점을 기록했다. 남은 5경기에서 나지완이 부족한 9타점을 채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타이거즈 외국인 사상 첫 '30홈런-100타점' 기록을 달성한 터커도 '100득점-100타점' 기록을 남겨두고 있다. 세 차례 더 홈에 들어오면 100득점이 채

워진다. 마운드에서는 임기영의 표정에 눈길이 쏠린다. 임기영은 지난 25일 삼성전에서 6.1이닝 1실점의 호투를 하면서 10-1, 대승의 주역이 됐다. 개인 최다인 9승을 이룬 임기영은 선발에게는 많은 의미가 있는 '10승'에 욕심을 내고 있다. 마침 기회도 생겼다. 비로 취소됐던 NC와의 경기가 31일 재편성되면서 임기영이 10승에 도전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됐다. 임기영은 2017년 선발 한 축을 차지하면서 '우승 주역'으로 활약했다. 하지만 시즌 중반 폐렴에 발목이 잡히면서 8승에서 승수가 멈췄었다. 올 시즌 위기의 마운드에서 선발로서 한 단계 도약한 임기영이 10승 투수로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만 41세·547경기·228골·77도움 'K리그 전설' 이동국 은퇴

내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은퇴 회견 다음달 1일 대구와 홈에서 은퇴경기 23년 선수생활 독보적 기록 남겨



'라이온 킹'의 시대가 저문다. K리그의 '살아있는 전설' 이동국(전북현대)이 26일 은퇴를 선언했다. K리그 최다득점 주인공 이동국은 2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은퇴 기자회견을 한다. 그리고 11월 1일 2020시즌 최종전인 대구FC와의 홈경기를 끝으로 23년간 누비던 그리운드를 떠나게 된다. 떠나는 이동국 뒤에는 수 많은 기록이 남아있다. 1998년 포항스틸러스를 통해 프로 무대에 뛰어들 그는 2009년 전북 유니폼을 입고, K리그 통산 547경기 출전해 228골 77도움(전북 소속 360경기 출전·164골 48도움)을 올리며 K리그 최다골을 기록하고 있다. 대구의 데얀이 198골, 전북 김신욱이 132골로 그 뒤를 잇고 있다. 극적인 순간, 가장 빛나는 골잡이기도 했다. 이동국이 기록한 228골 중 65골은 팀의 승리를 이끈 결승골이었다. 결승골 부분에서도 대안(59골), 김신욱(52골)이 2, 3위에 올라있다. 이동국은 동료의 골에도 77차례 관여하면서 염기훈(수원삼성·110도움)에 이어 도움 2위에 올랐다. 3위는 서울 모리나(69도움)이다. 이동국은 2009시즌 22골을 폭발한 뒤 13골을 넣은 2018년까지 10년 연속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다. 두 자릿수 포인트로 따지면 2019년(9골 2도움)까지 11시즌으로 기록이 연장된다. 1979년 4월 29일생인 이동국은 '최고령' 기록도 독차지하고 있다. 오는 1일 대구전을 통해 자신의 최고령 출전 기록

을 연장하게 되는 이동국은 지난 6월 13일 인천전 결승골을 장식하면서 만 41세 최고령 득점 기록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7월 10일 문선민에게 넘겨준 패스는 K리그 최고령 도움(만 40세)으로 남아있다. 필드플레이어로는 가장 많은 경기(706경기)에 이어 전 체 2위다. 2009년 입단 첫해 전북의 창단 첫 리그 우승을 견인한 그는 같은해 득점왕과 함께 MVP의 영예를 안았다. 이동국은 2011년과 2014·2015년에도 최고의 선수가 되면서 K리그 최우수선수 최다 수상(4차례) 주인공이 됐다. 그는 또 전북에서 K리그 우승 7회, AFC 챔피언스리그 1회 우승을 이뤘다. AFC 최고 대회인 챔피언스리그에서 통산 37골

(75경기 출전)을 성공시켜, 이 대회 최다골 기록에도 이동국이라는 이름을 남겨놓았다. K리그를 넘어 아시아 최고의 공격수로 활약한 이동국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이기도 했다. 이동국은 프로 데뷔 해인 1998년 국가대표에 첫 발탁됐고 1998년과 2010년 FIFA 월드컵에 출전하는 등 A매치 105회(역대 10위) 출전, 33골(역대 공동 4위)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살아있는 전설에서 한국 축구의 역사가 되는 이동국은 '은퇴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2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 많은 분들의 격려와 사랑을 받아 감사하다며 "나는 정말 행복한 축구 선수였다. 특히 전북현대에서 보낸 시간과 기억은 많이 그립고,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고 은퇴 심경을 전했다. /김여울 기자 wool@

'첫 PO 진출' KT 이강철 감독 재계약

'막내 구단' KT 위즈의 창단 첫 포스트시즌 진출 꿈을 이룬 이강철(54) 감독이 3년 재계약을 선물 받았다. KT는 이 감독과 계약 기간 3년, 총액 20억원(계약금 5억원, 연봉 5억원)에 재계약했다고 26일 발표했다. 2019시즌을 앞두고 KT의 3대 감독으로 부임한 이 감독은 내년까지 계약 기간이 남아 있지만 KT는 미리 3년간 계약 기간을 더 보장했다. 2015년 1군 합류 이후 3년 연속 꼴찌에 그치는 등 최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KT는 이 감독 부임 첫해인 지난해 구단 최초로 70승 돌파와 5할

승률을 달성했다. 이 감독은 올 시즌에는 유한준과 박경수 등 베테랑의 활약 속에 젊은 선수들의 성장을 돕는 리더십을 발휘하며 창단 첫 포스트시즌 진출을 이끌고 KT 구단 역사를 새로 썼다. 남상봉 사장은 "이강철 감독은 부임 후 매년 '창단 최고 성적' 기록을 경신하는 등 KT를 강팀 반열에 올리며 '수원 야구'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며 "선수단의 잠재력을 끌어낸 지도력과 역량을 인정했고, 중장기적으로 '명문구단 도약'이라는 목표를 실현할 검증된 지도자"라고 재신임 배경을 밝혔다. /연합뉴스

'가을 커쇼'가 달라졌어요

WS 통산 5경기 1승 2패
올 시즌 1·5차전 호투로 팀 승 기여
다저스, 탬파베이에 시리즈 3-2

미국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에이스 클레이튼 커쇼의 역투를 앞세워 32년 만의 정상 탈환에 1승만을 남겼다. 탬파베이 레이스의 한국인 타자 최지만은 대타로 나왔지만, 타석에 서보지도 못하고 바로 교체됐다. 다저스는 26일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필드에서 열린 탬파베이와의 월드시리즈(WS·7전 4승제) 5차전에서 4-2로 승리했다. 이로써 다저스는 시리즈 전적 3승 2패로 앞서나 가며 31년간 이어진 우승 가뭄을 해결할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승리의 일등 공신은 다저스 선발 커쇼였다. 커쇼는 이날 5.2이닝을 5피안타 2볼넷 6탈삼진 2실점으로 막아내고 승리투수가 됐다. 커쇼는 내셔널리그 사이영상을 3번이나 받은 당대 최고의 투수지만 '가을야구'에선 부진했다. 특히 WS에서 작아졌다. 지난해까지 커쇼의 WS 개인 통산 성적은 5경기 1승 2패 평균자책점 5.40이었다. 하지만 올해 가을은 달랐다. 커쇼는 WS 1차전에서 6이닝 1실점으로 호투한 데 이어 5차전에서도 인상적인 역투를 펼치며 '가을 악몽'에서 벗어났다. 특히 커쇼는 이날 삼진 6개를 추가, 포스트시즌 개인 통산 207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며 저스틴 벨랜더(205개·휴스턴 애스트로스)를 뛰어넘어 포스트시즌 최다 탈삼진 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양 팀의 6차전은 하루 휴식 후 28일 오전 9시 8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연합뉴스